

광주시의회 상임위원장 구성 완료... 갈등 봉합 과제

재선거 파행 끝 교문위원장 선출
민주 의원 '자중지란' 후유증 지속
시당 '당론 준수' 경고문 보내기도
교육단체 "전문성 있는 견제·감시"

광주시의회가 내부 갈등으로 3차 투표 끝에 교육문화위원장을 선출하고 제9대 하반기 상임위원장 구성을 마쳤다. 다만 의장 후보 경선·상임위원 선임 과정에서 나온 의원 간 갈등·반목은 하반기 큰 해결 과제로 남았다.

광주시의회는 16일 열린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교문위원장 재선거를 실시하고, 민주당 내부 경선을 통해 단독 입후보한 명진 의원(찬성14표·무효6표·기권3

표)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앞서 명진 의원은 지난 11일 상임위원 1·2차 투표에서 절반을 넘지 못하는 11표를 받아 떨어진 바 있다. 같은날 진행된 행정자치위·환경복지위·산업건설위원장 투표도 모두 턱걸이로 절반을 넘겼다.

광주시의회는 전체 의원 23명 중 민주당 21명·국민의힘 1명·무소속 1명으로, 민주당 경선을 통해 정해진 출마자가 사실상 본선에서도 선출되는 게 일반적이다. 지난 2022년 전반기 원 구성 당시 최다 무효표는 2표였다. 특정 상임위원장 선출이 안 돼 재선거가 치러진 것은 지방의회 출범 이후 두 번째(2008년)다.

명진 의원은 당선 소감을 통해 "개인적인 부족함으로 의회 전체가 거론돼 죄송

하다"며 "하나 되고 소통함으로써 일 잘하고 신뢰받는 교문위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달 29일 민주당 시의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의 '약세 후보간 야합' 논란과 교문위 상임위원 선정 과정에서 나온 갈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선거 파행이 빚어진 교문위에서는 정원이 6명인 상임위에 11명이 지원해 3시간 넘는 논쟁이 발생, 결국 제비뽑기로 구성을 마무리하는 촌극이 빚어졌다.

민주당 광주시당이 지난 12일 소속 시의원들에게 '민주당 내부 경선 결과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경고문을 보내 급한 불은 졌지만, 답합과 배신이라는 감정 대

립이 남아 원 구성 이후에도 의정 추진 방해 등 후유증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광주교육시민단체는 이날 의견문을 내고 "전문성이 강화된 교문위 구성으로 교육청에 대한 견제·감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이 과반 득표에 실패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비전과 전문성이 아닌 제비뽑기에 의지하는 행태에 참담하기 그지없다. 권력·자리다툼이 아니라면 이 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퇴행, 중학교 스마트기기 예산 낭비 등 굵직한 교육 현안이 산적하다. 과연 이들이 어떤 교육 희망을 일굴 수 있을까"라며 "사리사욕을 벗어나

교육청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로 시민들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 광주시의원은 우여곡절 끝에 마친 상임위원 구성에 대해 "의도치 않은 상황이다. 하반기 시작부터 상호 믿음이 무너졌다"며 "뒷맛이 씁쓸하지만 어쨌든 구성은 마무리됐다. 이제라도 시의회가 시민·지지자들에 신뢰받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당분간 자성의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오는 19일 예산결산·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운영위원장을 선출하고 하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광주시,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62개로 확대

맛집 식사권 등 48개 품목 추가
공급업체 온·오프라인 홍보 동참

광주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이 기존 14개 품목에서 62개 품목으로 대폭 늘어났다.

답례품은 맛집 식사권부터 체험상품, 관광상품, 공예품까지 다양하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어 신규 답례품 48개를 추가 선정했다.

기존의 답례품 14종은 지역 농·특산품 위주로 구성돼 '맛의 고향 광주'의 특색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광주시는 이를 적극 반영해 맛집·관광·체험 분야를 중심으로 먹거리, 반려식물 키트 등 다양한 유형의 답례품을 선정했다.

특히 이번 답례품 및 공급업체 공모에는 '베베에르베이크리', '상무초밥', '황톳길' 등 광주 대표 맛집을 비롯해 2024 대한민국 주류 대상을 수상한 '꿈부러이리', 광주를 기반으로 1000여건의 다양한 체험 상품을 제공하는 '모람플랫폼' 등 많은 업체들이 참가해 광주를 상징하는 양질의 답례품을 제공하기로 해 기부자들의 만족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

된다.

또 국립광주과학관과 광주비엔날레재단 등 관계기관에서도 광주시 고향사랑기부제에 한해 입장권을 할인 판매해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에 힘을 보탠다.

국립광주과학관은 4인 가족 통합입장권을 1만원에,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입장권을 사전 판매 할인가격인 1만5000원에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선정된 고향사랑기부 공급업체는 광주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등 자체 유통채널을 활용한 홍보활동에 나서고, 광주시 고향사랑기부 모금액과 업체의 매출을 함께 높이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상생 동반자로서 광주시와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박운원 자치행정과장은 "네이밍도네이션, 관광, 체험, 맛집 등 광주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답례품이 준비됐다"며 "앞으로 답례품 등을 통해 광주시 고향사랑기부 유인을 강화하고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규 추가된 광주시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은 7월말 '고향사랑e음' 사이트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노병하 기자



사랑의 여름김치 나눔 봉사

임택 광주 동구청장, 김영인 대한적십자 봉사회 동구지구 협의회장, 양귀섭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부회장 및 봉사원 등이 16일 광주 적십자광주봉사관에서 열린 '밀한나눔봉사'에서 취약계층 200여 세대에 전달할 열갈이 김치를 담고 있다.

김영배 기자

광주시, 위기 임산부 지원... 상담기관 '엔젤하우스' 지정

광주시에 경제적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들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기관을 지정, 운영한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9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상담기관으로 '엔젤하우스'를 지정했다.

'엔젤하우스'는 남구 봉선동에 위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출산과 원가정 양육을 위해 상담전화 '1308'을 24시간 운영하며 상담·정보 제공, 서비스 연계, 사

례관리, 보호출산 등을 지원한다.

'위기임산부'는 임신 중 여성(위기임부)과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위기산부)이 경제적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지칭한다.

위기임산부가 상담 후 입소를 원할 경우 엔젤하우스에 입소 가능하고, 이후 원가정 양육 또는 보호출산을 결정한다.

노병하 기자

본핏동물병원이 광주본동물병원으로 상호를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광주본핏동물병원은 아이들을 존중하는 뜻으로 애완의 의미인 핏을 삭제하고 광주본동물병원으로 새롭게 상호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착한마음' '착한진료' 반려동물의 근본을 치료하고 반려동물을 본받게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호만 변경되며 의료진, 전화번호, 위치는 동일합니다

디스크 / 슬개골 / 호르몬 질환 전문



광주본동물병원 GWANGJU BON ANIMAL HOSPITAL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0 T. 062-447-8575

